

#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 조지아

Republic of Georgia

2022년 3월 8일 | 조사역(G3) 이승제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 일반개황

<b>면적</b> 70천 km <sup>2</sup> 	<b>인구</b> 371만 명 (2021 <sup>e</sup> ) 	<b>정치체제</b> 내각책임제 	<b>대외정책</b> 러시아와의 갈등 및 서방과의 관계 정체 
<b>GDP</b> 178.46억 달러 (2021 <sup>e</sup> ) 	<b>1인당GDP</b> 4,808달러 (2021 <sup>e</sup> ) 	<b>통화단위</b> Lari (GEL) 	<b>환율(U\$기준)</b> 3.22 (2021) 

- 조지아는 흑해 동남쪽 카프카즈 산맥 기슭에 위치한 소국으로 러시아, 터키,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의 4개국에 둘러싸여 있으며, 철, 구리, 금 등 1차산품의 수출 및 관광업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편임.
- 조지아 내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야 지역의 분리독립 움직임을 둘러싸고 2008년 발발한 조지아와 러시아 간 전쟁의 결과 러시아가 승리하여, 현재 남오세티아 및 압하지야 지역에는 조지아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총선과 2013년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으며, 개헌을 통해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정치체제를 변경하였음.
- 2014년 6월 EU와 심층·포괄적 자유무역협정(DCFTA)을 포함하는 준회원 가입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EU 가입을 서두르고 있음.

## 우리나라와의 관계

**국교수립** 1992. 12. 14 수교 (북한과는 1994. 11. 3)

**주요협정** 외교관·관용·공무사증면제협정('13), 문화·예술·청소년·체육협력협정('14), 해운협정('14), 이중과세방지협정('16),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19), 항공업무협정('21)

###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19	2020	2021	주요품목
수출	86,467	98,162	103,228	귀금속, 석유제품, 수송기계
수입	18,641	14,676	11,204	금속제품, 전자부품

**해외직접투자현황(2021년 9월말 누계,총투자기준)** 14건, 199,259천달러

##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sup>e</sup>
경제성장률	4.8	4.8	5.0	-6.2	7.7
소비자물가상승률	6.0	2.6	4.9	5.2	9.3
재정수지/GDP	-0.5	-0.8	-1.8	-9.2	-6.5

자료: IMF, EIU

### 조지아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내수 확대를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이전인 2017~19년 조지아 경제는 국내수요의 증가와 주력산업인 관광업의 호황으로 연평균 4.9%의 성장세를 보임. 2014~16년에는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던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전까지 조지아 경제가 꾸준히 성장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조지아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는 동안 조지아 정부는 재정준칙의 준수를 강조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targeting regime)를 실행하며, 엄격한 감사를 통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길러옴.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투자 유입과 순수출의 동반 급감, 2020년 큰 폭의 경기 침체

- 조지아는 코로나19의 영향을 비교적 크게 받은 국가 중 하나로, 2020년 -6.2%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며 1990년대 이후 가장 큰 폭의 경기 침체를 경험함. 이는 주로 투자 유입과 순수출의 동반 급감에 의한 것으로, 가계소득 감소와 실업률 및 빈곤율의 동반 상승이라는 결과를 낳았음.
- 경기 침체로 큰 타격을 받은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조지아 정부는 GDP의 3.8%에 해당하는 재정자원을 긴급 투입함에 따라 조지아의 재정적자와 공공부채는 각각 GDP의 9.2%, 60%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분기 16.6%였던 실업률이 2021년 2분기 22.1%까지 상승하는 등 조지아 경제는 2021년 상반기까지 코로나19의 충격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된 모습을 보였음.

###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회복세에 접어든 경제는 2022년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

-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가, 사회 차원에서 실시했던 거리두기, 이동 제한과 같은 조치들로 억제되었던 수요가 2021년 하반기 들어 폭발하면서 조지아 경제는 급격한 회복세에 접어들었음. 이에 IMF는 2021년 조지아의 경제성장률 예측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2021년 4월 예측치 3.5% → 2021년 10월 예측치 7.7%)하였음.

## 국내경제

- 2021년 조지아의 경기 회복은 V자 반등의 형태를 그린 것으로 추측되며, 결과적으로 조지아의 GDP 규모는 2021년 말 178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직전인 2019년의 GDP 규모(17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를 벗어나 성공적으로 경기 회복을 이루어낸 것으로 판단됨.
- 이러한 성장세는 2022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IMF와 EIU는 2022년 조지아의 경제성장률을 각각 5.8%, 5.2%로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예측은 민간소비의 증가와 고정투자의 증가에 기인하는데, EIU는 2022년 조지아의 민간소비와 고정투자가 각각 전년 대비 5.4%,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현재 조지아의 백신 접종률이 낮고 계속해서 전염성 높은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코로나19의 재유행에 의한 경기 둔화 가능성 역시 존재함.
- 또한 조지아의 주력산업은 관광업으로 GDP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하고 있어 팬데믹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성장세 회복과 억눌린 수요의 폭발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상회할 전망

- 조지아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빠르게 회복하면서 소비자물가 역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음. IMF에 따르면 2021년 조지아의 연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은 9.3%로 추정되어, 조지아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치인 3%를 훨씬 상회하고 있음. 이처럼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조지아 라리(GEL)화의 평가절하와 일반 소비재 및 식료품의 가격 상승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2년에도 연평균 5.4~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물가상승 압력은 경제활동의 활성화로 인한 수요 증가와 교역비용 증가로 인한 높은 수입가격으로 인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더욱 강할 것으로 분석되며, 2022년 하반기에는 강도 높은 긴축적 통화정책의 시행을 통해 이러한 물가상승 압력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대외거래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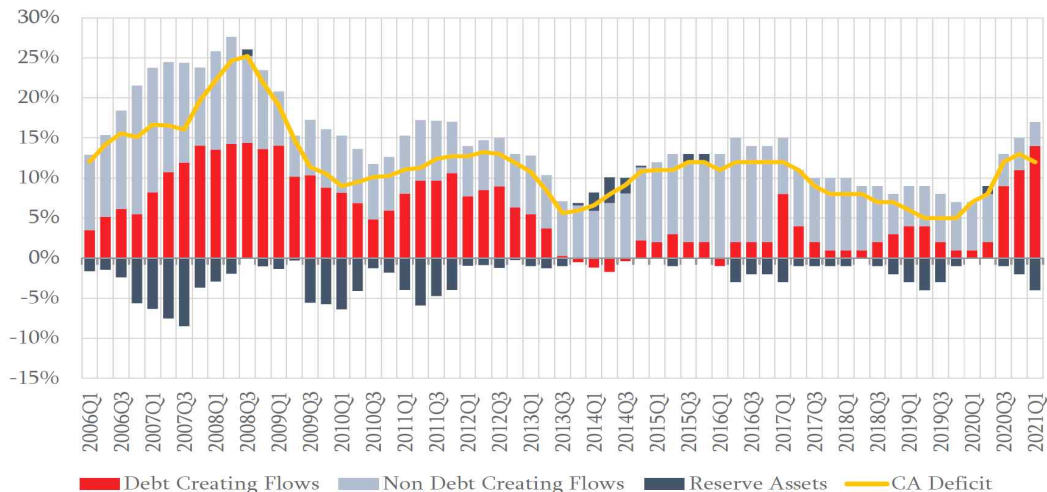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경 상 수 지	-1,419	-1,264	-1,014	-2,146	-1,603
경상수지/GDP	-8.7	-7.2	-5.8	-13.5	-9.1
상 품 수 지	-3,809	-4,116	-3,736	-3,165	-3,575
상 품 수 출	3,570	4,407	4,944	4,347	6,533
상 품 수 입	7,379	8,522	8,681	7,512	10,108
외 환 보 유 액	2,833	3,089	3,307	3,700	3,784
총 외 채	16,024	17,631	18,445	20,399	20,179
총외채잔액/GDP	98.7	100.2	105.5	128.4	113.1
D.S.R.	19.3	18.9	19.0	27.2	20.6

자료: IMF, EIU

###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조지아의 경상수지는 1990년대 이래 지금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음.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3.5%까지 상승하여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구조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한때 관광업의 성장에 힘입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016년 12.5%에서 2019년 5.8%까지 축소된 바 있는 만큼, 추후 국가 차원의 관광업 지원과 고부가가치 수출산업 육성이 이루어진다면 경상수지 흑자 전환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그림 1] 조지아의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 추이(2016.1분기~2021.1분기)



자료: The National Bank of Georgia, Financial Stability Report 2021.

## 외채상환능력

### 외환보유액이 다소 부족하며 외채비율이 경제규모에 비해 높은 편

- 조지아는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액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21년 조지아의 외환보유액은 월평균수입액의 3.3개월분 수준으로, 이 정도 규모의 외환보유액은 조지아가 직면할 가능성이 있는 급격한 국제 경제환경 변화나 외환위기 등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망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됨.
- 한편 외채비율은 경제규모 대비 높은 편으로, 2021년 기준 조지아의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은 113.1%, D.S.R.(외채원리금상환비율)은 20.6%로 모두 적정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됨. 조지아의 상대적으로 높은 외채비율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한 외환보유액 부족분의 충당을 해외직접투자 유입과 해외차입에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의한 것으로, 외채 관련 위험을 줄이고 충분한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확보하기 위한 경제 개발과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2020년 라리화 약세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지출 증가로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이 전년(105.5%) 대비 급상승한 128.4%를 기록하였으나, EIU는 향후 조지아 정부의 재정 준칙 준수와 에너지/교통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한 해외직접투자 유입을 통해 2026년까지 동 비중을 90%대 초반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구조적취약성

### 빈약한 제조업 기반과 낮은 주변국 접근성으로 경제 발전에 한계

- 조지아는 제조업 기반이 빈약하고 주요 수출상품들이 부가가치가 낮은 1차 상품으로 구성되어 수출 부문의 성장 가능성이 낮게 평가됨. 이에 조지아 정부는 중계무역을 주요 수출전략으로 삼고 있으나, 중계무역의 주요 품목이 철스크랩(철강재 가공 과정에서의 부산물), 중고차 등으로 무역 과정에서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적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적음.
- 조지아는 자체적인 자동차 생산 공장을 보유하지 않고 있으나, 대신 유럽과 일본으로부터 많은 물량의 중고차를 수입해 낮은 관세와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를 이용해 주변국들과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에 판매하는 중고차 매매의 요충지임.
-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등 주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환경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조지아가 글로벌 공급망에 편입되지 못하고,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조지아의 제조업 성장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극도로 빈약하기 때문으로 분석됨.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지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 인프라 구축이 요구됨.
- 조지아의 노동인력은 대부분 단순 봉제업 위주의 저숙련 노동자로, 고부가가치 제품이나 첨단제품을 생산할 역량이 부족해 생산공장 등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높은 빈곤율(21.3%, 2020)과 지하경제 규모(GDP의 41%로 추정, 2019)도 조지아의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됨.

## 성장잠재력

### 코로나19 팬데믹 종결 시 관광업 성장 회복 기대

- 조지아는 약 15만 명이 관광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GDP의 1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관광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 산업임. 2020~21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이동을 제한함에 따른 관광업의 전 세계적 침체로 조지아의 관광업 수입 역시 급감하였음.
- 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0년 전 세계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무려 74% 감소하였으며, 조지아 외교부는 2020년 조지아에 입국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약 81% 감소한 것으로 집계함.
-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직전까지의 10년 간 관광객 수를 약 5배 늘리는데 성공한 조지아 관광업의 가파른 성장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종결되면 관광업은 이전의 성장세를 되찾아 조지아 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조지아 외교부 통계에 따르면, 조지아에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대부분은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아르메니아, 이스라엘 등 주로 인접국들로부터의 관광객임. 이들에 더해 비교적 가까운 동아시아와 유럽의 관광객들을 유치할 경우 관광업 성장세가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객들의 소비지출에 의한 경기 활성화, 제반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성장잠재력

[그림 2] 관광업의 조지아 GDP 기여도 추이(2015~20년)



자료: The National Bank of Georgia – Annual Report 2020

## 정책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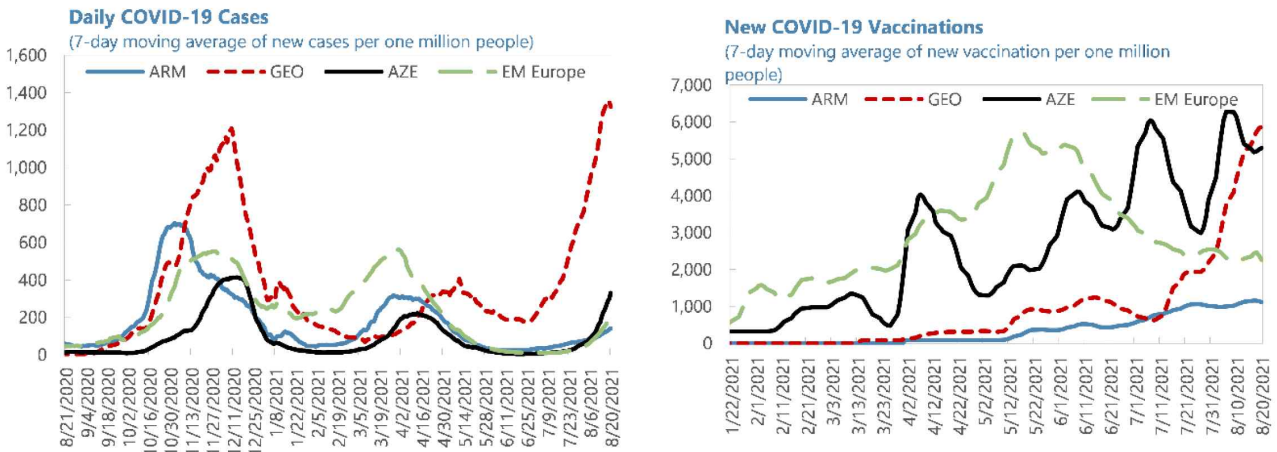
### 경제 성장에 따른 리스크 관리에는 성공했으나,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미흡

- 조지아 정부는 2015년 이후 경제가 성장세를 이어가는 동안 재정준칙의 준수를 강조하는 경제정책 기조 유지와 물가안정목표제의 실행을 통한 소비자물가상승률 관리로 경제의 과열화를 방지하고 꾸준한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성공적으로 조성해옴.
- 2021년 하반기 이후 조지아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 침체로부터 반등을 보이며 수요가 급증하고 가계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이 과도한 물가상승을 막기 위해 현재 10.5%인 기준금리를 11%까지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높음. (조지아 중앙은행은 2021년 3월부터 12월 사이에 기준금리를 이미 2.5%p 인상하였음)
- 반면, 방역과 확진자 치료, 백신 접종율 관리 등 정부 차원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전반적 대응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2021년 10월 이후 찾아온 코로나19의 세 번째 대유행으로 한때 조지아는 인구당 코로나19 사망자 수 세계 8위를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비슷한 지리적/환경적 요건을 공유하는 구소련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순위로 조지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했음을 나타냄. 조지아 경제가 코로나19의 영향에서 벗어나 성장세를 회복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경기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코로나19 관리 정책이 요구됨.



## 정책성과

[그림 3]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과 EU 신흥국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 신규 백신 접종자 수 비교



자료: IMF, Staff Report for The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 Georgia

## 정치안정

### 총선 결과에 대한 야당의 부정 선거 의혹 제기로 여-야 관계 악화

- 2020년 10월과 11월에 걸쳐 치러진 총선에서 현 집권 여당인 '조지아의 꿈-민주 조지아'(GD-DG)는 총 150석 중 90석을 획득하는 큰 승리를 거두며 2012년 및 2017년에 이어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하였으나, 통합국민운동당(UNM)를 필두로 한 야권연합에서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 불복 시위와 의회 보이콧으로 대응해 여-야의 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상태임.
- GD-DG는 여전히 조지아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소비자 물가 및 실업률 상승, 관광업의 침체, 코로나19 관련 대응 미흡 등으로 지지율이 점차 하락하고 있음. 2021년 하반기 시작된 경기 반등을 기회로 삼아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면모를 보여준다면 지지율 반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사회안정

### 낮은 백신 접종률로 코로나19 재유행 위험 존재

- 조지아 정부는 2021년 3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나, 백신 공급의 부족과 열악한 보건 관련 인프라로 인해 2022년 2월 기준 전체 인구의 33%만이 2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됨. 이는 전 세계 평균인 56%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임.
- 오미크론 변이와 같은 전염력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는 점과 조지아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지난 2020년 10월 이후 다시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시 강도 높은 봉쇄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함.

[표 1] 조지아와 세계 평균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비교

구분	1차 접종률	접종 완료율	100명당 백신 확보량
세계 평균	64%	56%	138명분
조지아	42%	33%	75명분

자료: University of Oxford - Our World in Data(2022년 2월 기준)

## 사회안정

### Moody's는 조지아의 ESG 신용영향점수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

- 국제신용평가기관인 Moody's는 조지아가 높은 인구·고용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점과, 환경·기후적 위기가 존재하나 정부가 이에 대해 인지하고 적절한 대응을 펼치고 있으며,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가계 수입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지아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를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하였음.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됨. 2021년 11월 Moody's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동사의 ESG 평가대상 144개국은 1등급 11개국(대한민국 등), 2등급 30개국(미국 등), 3등급 37개국(일본·중국 등), 4등급 47개국(베트남·인도 등), 5등급 19개국(이라크·베네수엘라 등)으로 분류됨. 특히 선진국에 비해 지배구조(Governance)가 취약한 개도국의 경우 전체 107개국 중 1등급 국가는 없으며, 41개국이 2·3등급, 66개국이 4·5등급에 분포되어 있어 ESG 영향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환경)** 조지아의 산업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농업 부문의 노동자들에게 특히 악명 높은 폭염에 의한 열 피로(Heat Stress), 안전한 식수에 대한 낮은 접근성 등 기후·환경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실제적 위험을 고려해 환경 영향은 3등급(Moderate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사회)**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청·장년층 실업률이 높은 점, 가계소득 수준이 낮은 편으로 기대 수명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 및 교육 분야에 대한 소비와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 영향은 4등급(Highly Negative)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지배구조 측면에는 별다른 위험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조지아 정부는 그간 노동시장과 상품시장의 유연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수용 능력을 기르고 경제개혁을 실시하였으며,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의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지원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해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지배구조 영향은 2등급(Neutral-to-Low)으로 평가됨.

## 국제관계

### 러시아와의 관계 2019년 이후 다시 급격히 악화됨

- 조지아는 구소련에서 독립한 국가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조지아를 자국의 영향 아래 두려는 의도를 드러내 왔음. 2003년 조지아에서 일어난 이른바 '장미 혁명'으로 친러시아파 대통령이 물러나고 친서방 성향 정권이 들어서 EU, NATO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치자 러시아는 조지아산 와인과 생수의 수입을 금지하는 무역 보복을 실행하였음.
- 러시아는 이어 2008년 조지아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던 친러 성향의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지역 분리 주의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조지아를 침공하여 승리를 얻어내고, 이를 통해 압하지야, 남오세티야 지역이 조지아 중앙정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분리 독립을 선포하도록 지원하여 조지아 영토 내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함.
-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는 조지아로부터의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이는 국제사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하고 있음.
- 2012년 집권한 현 여당 GD-DG가 대러시아 관계의 정상화를 시도하면서 조지아-러시아 간 이동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무역이 재개되는 등 러시아와의 긴장 상태는 일정 기간 소강 국면을 맞이하였음. 그러나 2019년 조지아에서 개최된 '정교회 의회 간 회의'(IAO) 총회에서 과거 압하지야-남오세티야 지방 독립을 주장했던 러시아 의원이 조지아 의회 의장석을 차지하고 러시아어로 연설을 진행하자, 조지아 의회의 친서방 성향 야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그들의 지지자 약 1만여 명이 수도 트빌리시에서 과격 시위를 벌이면서 양국의 관계는 다시 급격히 악화됨.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서방과의 관계 강화 가속화

- 일련의 사태들을 거치며 조지아 국민들의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증대되어, EU에 대한 지지와 NATO 가입에 대한 동의는 국민적 합의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됨. 조지아 정부 역시 2020년 12월 의회 결의안을 통해 NATO 가입을 전략적 외교정책의 우선 사항으로 정의하고, 2021년 9월 열린 UN 총회에서 이카를리 가리바슈빌리 총리가 조지아의 EU 가입 의지를 재확인한 것에서 드러나듯 두 사안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의 러시아계 주민 보호를 빙자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민간인에 대한 폭격을 자행하면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이 자국을 비롯한 구소련 국가들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면 위기감이 고조되자, 조지아 정부는 3월 3일 EU 가입을 전격 신청하였음.
- EU는 2017년 조지아 국민들이 쉥겐 협약 가입국들에 대해 무비자로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또한 조지아 군은 NATO 군과 수차례의 작전과 합동훈련을 진행하며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그동안 단기간 내 조지아의 EU 및 NATO 가입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조지아의 EU 및 NATO 가입 승인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외채상환태도

### 채무재조정 이후 안정적인 외채원리금 상환 지속

- 파리 클럽(Club de Paris)과 체결한 2001년과 2004년 총 2건(약 2.2억 달러)의 채무재조정 건에 대한 외채원리금의 상환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2021년 9월 말 기준 조지아 앞 OECD 회원국 ECA 지원 잔액은 179.2백만 달러(단기 65.1백만 달러, 중장기 114.1백만 달러)이며, 이 중 0.2백만 달러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됨. 연체규모가 매우 미미하여 외채상환태도는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 국제시장평가

###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6등급(2022.01)	6등급(2021.01)
Moody's	Ba2 (2017.09)	Ba3 (2016.03)
Fitch	BB (2019.02)	BB- (2017.03)

### 꾸준한 성장세를 바탕으로 상향 조정된 신용등급 유지 중

- OECD는 2007년 1월 조지아의 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뒤 2022년 3월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17년 9월 조지아의 신용등급을 Ba3에서 Ba2로 한 단계 상향 조정했으며, Fitch는 2019년 2월 조지아의 신용등급을 BB-에서 BB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였음. 이러한 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경제 성장 과정에서 보여준 조지아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과 위기관리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분석됨. 다만, 신용평가사들은 조지아 경제에 대해 여전히 부실한 금융 부문과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 조지아 경제는 국내수요 증가, 주력 산업인 관광업의 호황 등으로 2017~19년 연평균 4.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지속해 왔으나, 2020년 이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큰 폭의 경기 침체를 경험하며 경제성장률과 경상수지가 크게 악화됨.
- 2021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V자 형태의 경기 반등을 보이면서 방역 조치와 이동 제한 등으로 그간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고 고정투자가 증가하여 이전의 경제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나,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경기가 침체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려한 자연경관 등 관광업 잠재력이 높으나, 제조업 기반이 매우 빈약하고 숙련 노동자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제조업 인프라 마련과 숙련 노동자를 길러낼 수 있는 교육의 강화가 요구됨.
- 정부의 적절한 정책적 뒷받침과 외부위험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코로나19 관리를 통한 경기 침체 방지, 러시아러부터의 가중되는 위협을 막아내기 위한 서방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등이 향후 조지아의 경제 성장과 국가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